

“첫째 아들놈에게 물려 줄거여”



정 부 진 차장

한일사료(주) 마케팅부

우리나라 낙농은 어떻게 발전해 갈것인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 우리 모두는 우리의 낙농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젖소를 키우는 분들이 3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만나는 낙농인 마다 "이제 그만 두어야지" "자식에게 이런 고생은 안 시킬 작정이야"라고 말한다. "이 땅을 팔면 내 평생 먹고 지낼 수 있는데, 지금 마땅히 할일도 없고 해서 그냥 붙들고 있을 뿐이여" "아이고 이것은 못해먹을 일이여, 비육우나 서서히 해야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무수히 들으며 우리나라 낙농의 앞날을 걱정하는 것이 과연 무리일까?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이러한 상황아래서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비관론에 휩쌓이게 된다.

현재 젖소를 키우는 분들이 그나마도 우리의 낙농을 지키고 있는 입장인데 요즘의 현실을 보면 안타까움은 더해만 간다.

부동산! 여기서도 골치거리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땅값이 문제이다.

요즘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할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 내지는 무사안일에 빠지게 하는 주범이 바로 이 부동산과 투기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의한 피해는 축산업 특히 낙농분야에서 엄청난 손실로 나타나고 있다.

땅값이 자고나면 오르는데 두당산유량 몇 키로그램 늘리는 일에 관심이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2~3년 후면 땅값이 지금보다 곱절은 뛴텐데, 산차를 늘리기 위해 부족함이 없는 영양공급에 관심을 집중하고, 송아지를 조사료 위주로 건강하게 키워 능력있는 착유우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겠는가?

지금 시세로도 각 목장에서 갖고있는 땅에 조사료를 심는다면 그 생산비는 상당히 높게 계산된다.

잡초가 무성하고 노는 땅이 많은데도 미국이나 캐나다로 부터 조사료를 수입하는 현상이 이 때문인 것이다.

땅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인건비도 올라 중국에는 우유생산비를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낙농현실!

이러한 악순환에서 우리의 낙농이 생존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근본대책이 나와야 한다.

이번에 단행된 5.2%의 우유값 인상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낙농에 활기를 불어 넣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에 쏟는 한 통의 물에 지나지 않는다. 무더위에 스쳐 지나가는 한줌의 바람에 불과하다. 그것은 금방 목타고, 금방 더워지는 순간적인 대책일 뿐 ……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낙농은 국민의 식량자원과 식생활 차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낙농업이 이 나라의 지각에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앞만 무성케 하는 임시방편은 건전한 성장 보다는 결국 그 나무를 고사(枯死)시킬 우려가 더욱 높은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더불어 우리의 낙농업도 튼튼한 뿌리와 함께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놀고 먹는 사람이 경멸의 대상이 되고 불로소득이 자취를 감추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땀 흘리는 사람이 존경받는 풍토가 조성 되어야 하는 것이다.

좋은 우유를 생산해야 한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현재 낙농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더욱 전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낙농인들은 더 좋은 우유 더 깨끗하고 영양이 풍부한 우유를 만들어야 한다. 우유내 세균수는 더 줄이고 비타민, 칼슘, 단백질 같은 고형분은 더 많게 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함량만을 체크하여 우유값을 매기던 방식은 우리 낙농인에게는 좋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제도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나 학계, 업계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차일피일해서는 절대 안된다.

좋은 우유는 소비를 늘려 줄 것이고 다른 식품과도 품질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또 하나 시급한 과제는 우유를 값싸게 생산하는 일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현대는 국제화시대와 수입개방이 코앞에 닥쳐있는 실정이다.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는 일, 두당 산유량을 높이는 일 등 생산원가를 낮추는 노력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낙농업은 살아남기를 바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젖소를 키우는 낙농은 진실로 한 국가의 어떤 분야 보다도 중요하다. 우유와 고기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일 뿐만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가꾸는 영양덩어리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낙농! 건전한 발전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면서 우리 낙농인 대부분이 이렇게 말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낙농은 해볼만한 거여, 땀 흘린 만큼 보람이 있잖는가?”

“첫째 아들놈에게 물려 줄거여”